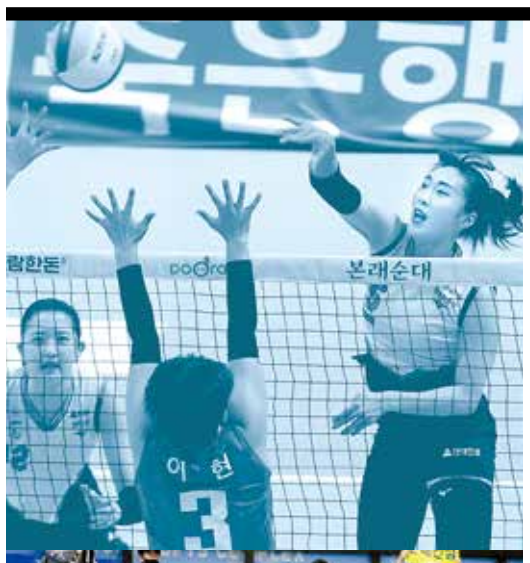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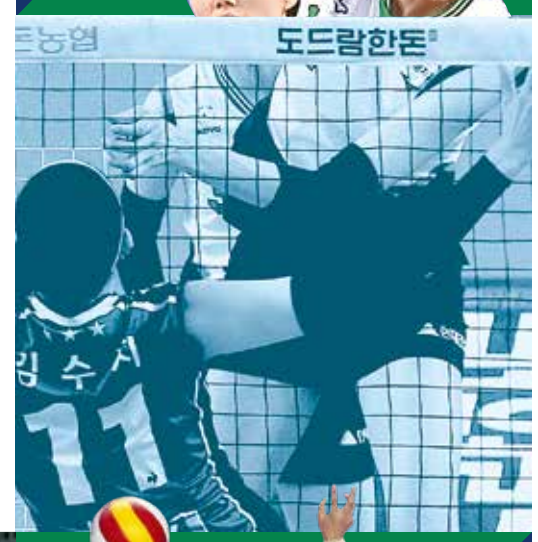
HYUNDAI E&C TODAY

Vol 410

2022 / 1 / 25 TUE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이영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V리그 최초의 대기록… 현대건설號 우승 향해 질주하다

23승1패로 4라운드 단독 선두…
남녀부 통틀어 단일 시즌 11연승 이상 두 차례 달성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현대건설 배구단의 기세가 매섭다. 현대건설은 1월 19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대 1(25-15, 22-25, 25-15, 25-16)로 완파하며 4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남녀부를 통틀어 V리그 최초로 한 시즌에 11연승 이상을 두 차례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날 승리로 승점 68점을 쌓은 현대건설은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과 최다 승점(2012~2013시즌 기업은행 25승5패·승점 73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승점 54)와 14점 차로 여유 있게 앞서 있다. 올 시즌 현대건설은 '원팀'을 앞세운 강성형 감독의 지도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베테랑 양효진과 찰떡 호흡을 이루는 센터 이다현은 든든한 주축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황민경·고예림은 안정적인 리시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포' 야스민은 공격성공률 2위(43.49%)를 달리며 우승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조커로 투입 중인 입단 4년차 정지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위기 때마다 짜임새 넘치는 전력을 자랑한다. 야스민의 부상 공백은 베테랑 황연주가 메웠고, 주전 리베로 김연견이 나서지 못하자 백업 김주하가 활약을 펼쳤다.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4라운드 경기를 끝낸 양효진 선수는 "연승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23승'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선수들 눈빛만 봐도 의지가 넘친다. 남은 라운드도 이 기세를 몰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을 넘어 'V리그 역대 최강팀'까지 넘보고 있는 현대건설 배구단. 올봄에도 이들이 보여줄 거침없는 질주가 더욱 기대된다.

Suwon Hyundai E&C Hillstate extends winning streaks with victory. Hyundai E&C swept its way to a 3-1 win over Incheon Heungkuk Life in the last game of the fourth round of the Dodram 2021-2022 V-League on January 19. This victory enabled Hyundai E&C to achieve 11 consecutive wins or more twice in a single season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professional volleyball V-League (including both male and female leagues).

Hyundai E&C's residential design recognized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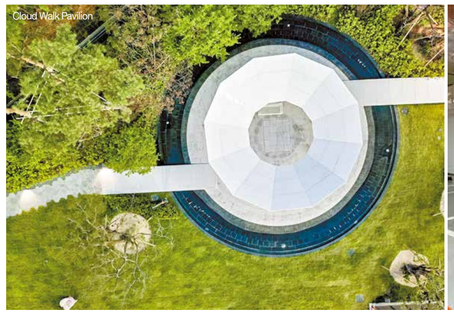
Hyundai E&C wins Good Design® Award and Korea Color Awards

Our company is being recognized globally for design excellence and creativity.

Our company has won the Good Design® Award 2021 for Cloud Walk Pavilion of THE H La Class, making Hyundai E&C the only winner among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Founded in 1950, the Good Design® Award (USA) is one of the world's prestigious design awards with a long history. The Good Design® Award selects the best designs each year through evaluating categories such as aesthetics, innovation and new technologies.

Cloud Walk Pavilion, jointly designed by Dutch graphic designer Karel Martens and Korean architect Choi Jang-won, is a work of sculpture embodying cloud as well as a rest place for apartment residents. It has also received the Architizer A+ Product Award last year.

In addition, our company has won the RED award at the 2021 Korea Color Awards hosted by the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The Korea Color Awards, which marks its 19th anniversary this year, selects excellent design cases related to colors in 11 categories including landscape,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and products. A total of 16 entries including Gen Z (Generation Z) Style submitted by Hyundai E&C have been awarded. Notably, Gen Z Style, the winner of the RED award (innovation), refers to a noble color and pattern design developed especially for Hyundai E&C's apartment brand Hillstate. Gen Z Style is well received in that the unique colors and patterns


Cloud Walk Pavilion

Gen Z Style

successfully added a diverse and sensuous touch to the apartment design. Gen Z Style was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color expert and scholar Massimo Caiazzo. On top of this, our design competitiveness was recognized in both domestic and global markets as Hyundai E&C was awarded at renowned design awards at home and abroad such as the 2021 Good Design (GD) hos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iF Design Award and the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Landscape Architecture Awards.

현대건설, 주거 디자인의 우수성·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다

'2021 USA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한국색채대상 'RED' 연달아 수상

우리 회사가 국내외 공모전에서 연달아 수상하며 주거 디자인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세계적인 권위의 '2021 USA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디에이치 라 클라스'의 예술 시설물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Cloud Walk Pavilion)'으로 본상을 받았다. 국내 종합건설사 중 유일한 성과다. 1950년부터 개최된 'USA 굿 디자인 어워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공모전으로 작품의 심미성, 혁신성, 신기술, 형태 등을 평가해 매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심사는 미국의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은 세계적인 패턴 디자이너인 네덜란드 출신 카렐 마르턴스(Karel Martens)와 한국의 건축가 최장원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구름을 형상화한 시설물은 관상용 조각 작품이면서 동시에 쉼터의 기능을 한다. 지난해 미국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프로덕트 어워드(Architizer A+ Product Award)'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한 '2021년 한국색채대상'에서 'RED'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술단체인 한국색채학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경관 ▶건축·인테리어 ▶제품 등 11개 부문에서 색채 관련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우리 회사의 'Gen Z(Generation Z) Style'을 포함해 총 16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한 'Gen Z Style'은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에 새로운 컬러와 패턴을 개발·적용한 디자인이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컬러 거장 마시모 카이아초(Massimo Caiazzo)와 협업해 개발했다. 이 디자인은 고유의 색채·패턴을 아파트 디자인 적용해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1 우수디자인상품'(GD, Good Design)을 수상한 데 이어 'iF 디자인 어워드' 'IDEA 디자인 어워드' '세계조경가협회(IFLA)' 등 국내외 굵직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건설 고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2 Management Policy

안전하고 행복한 글로벌 건설 리더

Global Construction Leader for Safety and Happiness

지속가능 성장
안전 최우선
최고의 품질은 나부터 시작
고객 감동 경영

Sustainability
Safety first
Best quality from myself
Customer delight

2030 전략 실행
신사업 추진 및 신시장 진출
에너지 전환 선도 (SMR, 수소)
기술기반 경쟁력 확보

Strategy Execution
New business & market expansion
Leading energy transition (SMR and Hydrogen)
Tech-driven competitiveness

함께 성장하는 회사
적극적 의지와 도전적 실행
권한 위임과 빠른 의사결정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Growing Together
Proactive willingness & challenge
Empowerment & fast decision-making
Happiness for all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현대건설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리 회사가 안전한 현장 문화 정착과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주간 '현대건설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일상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사·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과 임직원 대상의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을 동시에 진행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안전·보건 아이디어' 총 321건, '안전·보건 슬로건' 총 583건이 접수됐다. 안전관리실 내부 심사를 통해 출품작을 선정 후 사내 심사위원단의 1차, 2차 평가를 거쳐 오는 1월 28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아이디어 부문의 상위 수상작 2건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실시하는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될 예정이다.

시상을 통해 '안전·보건 아이디어' 부문 대상 1명(팀)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1명(팀)에게 300만원, 우수상 2명(팀)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장려상 4명(팀)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보건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각 25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2022 힐스테이트 인테리어 디자인 리뉴얼

우리 회사가 변화하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힐스테이트 인테리어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2022년 힐스테이트 단위세대 인테리어는 검증된 디자인과 색상 톤 안에서 전반적으로 깊이감 있고, 차분한 분위기를 구현하게끔 디자인했다.

우리 회사는 POE(Post Occupancy Evaluation, 거주후평가)조사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층의 다양한 의견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한편,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 시키기 위해 평면이나 마감재들 외에 '옵션 다양화'를 추진했다. 또한 같은 색상의 톤이라도 마감재를 달리하거나 패턴, 색상을 일부 조정해 등급별로 마감자재를 선택 할 수 있는 '마감 고급화 옵션'을 기획했다.

회사 관계자는 "리뉴얼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에 처음 적용한 이래 순차적으로 현장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 고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ROUP NEWS

현대자동차그룹, 설 연휴 전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4402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약 74억원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설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결연시설 및 소외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임직원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2022년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오는 3월까지 2022년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플랜트전기 ▶건설장비실무 ▶에너지설계 및 시공관리 ▶스마트건설관리 ▶건설공정관리 등으로 5~7개월간 진행된다. 생애 최초로 국기 과정 수강 시 교육생은 교육비와 교재비, 실습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 기간 중 상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예비 교육생들의 궁금증 해소의 시간도 마련했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동종 업계를 비롯해 협력사의 국내외 현장에 취업이 연계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현대건설 채용우대(특별채용, 실습제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edu.hdec.c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졸 이상 취업 희망자로, 나이와 성별에 제한이 없다.

한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현대건설이 직접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훈련기관으로 3년 연속 우수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1977년 개원한 이래 40여 년간 총 3만8000여 명의 우수한 건설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해 왔다.

CULTU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welcomes the Year of the Tiger

Korea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nd of Tigers."

Though they are now near-extinct, the peninsula was once home to a large population of tigers and they freely roamed the mountains that take up more than 60 percent of the country.

Tigers were both feared as a dangerous animal but also respected as a guardian creature. Koreans revere the animal so much so that many believe that the shape of the peninsula resembles a tiger. Even the official mascots for the Summer Olympic Games in 1988 held in Korea were tigers named Hodori, and Soohorang for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Gangwon.

This year is the Year of the Tiger, according to the Chinese 12-year zodiac cycle. Each of the 12 zodiac animals has its own significance, but for the land of tigers, this year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already opened its annual exhibit that focuses on each zodiac animal. For this year's tiger, the exhibition "Land of Tigers" kicked off at the museum's Seoul branch on Dec. 22.

The animal is also strongly associated with Korean culture. Both mountains and tigers were popular subjects for Joseon (1392-1910) artists. Tigers even appear in the mythology that begins Korean history — the Legend of Dangun.

In this legend, a tiger and a bear have to eat 20 cloves of garlic and a bundle of mugwort and remain out of the sunlight for 100 days in order to become human. The tiger gives up after 20 days, while the bear preservers, finishing the mission and turning into a woman. This woman gives birth to Dangun, who is known as the legendary founder of Korea. Though it is the bear that plays the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legend, tigers appear far more often than bears in Korean folklore.

According to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re are more than 1,000 folk tales that portray tigers in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 and more than 700 articles in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The vast traces of tigers, left in literature which documents oral tradition and written history, can be seen as the evidence of the tiger walking within our lives for a long time," said Kim Hyong-joo, the curator of the exhibit.

The exhibit sheds light on tigers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as "Mountain Gods" and then as the "animal that defeats misfortune."

As part of the exhibition, visitors can witness "Yeolyangsesigi" (Records of Seasonal Festivities around the Capital). It illustrates the use of tigers in the custom of *sehwa* and *aeho*. Talisman woodblocks for *samjae* (three disasters of water, fire and wind) are also on display in this section. Tigers and hawks are usually carved on a *samjae* talisman. There are also numerous paintings that portray a tiger and magpie together.

The exhibit runs until March 1.

BY YIM SEUNG-HYE
[YIM.SEUNGHYE@JOONGANG.CO.KR]

Welcome 2022!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랑~!

신년기획 힘찬 기운 가득한 호랑이의 해다. 팬데믹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임인년' 올해를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는 전 세계에 몇 마리 안 되는 특별한 동물. 2022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인공, 범띠 임직원의 새해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글 · 정리=이진우

Questions ① 2010년의 나 vs 2022년의 나 ② 2022년 나의 목표는? ③ 나만의 루틴을 소개합니다

김영우 책임매니저 | GBC개발사업단

나만의 시간을 멋지게 즐기시랑~!

① 2010년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겼지만, 코로나로 혼자인 시간이 많아진 올해의 저는 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어요. 친구를 만나는 대신 글을 통해 작가를 만나고 러닝을 통해 그동안 음식과 와인으로 채웠던 몸을 비우죠.
② 올해 목표는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틈틈이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멋진 소설이나 훌륭한 각본처럼 감동 가득한 글은 아니더라도 그저 생각 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편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③ 회사에서 저녁식사 후 퇴근 시간을 활용해 전자책을 보거나 유튜브 강연을 듣고, 아내와 집 근처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한 뒤 집에 가서 종이책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 독서는 최고의 수면제가 아닐까요? ☺

김윤환 책임매니저 | 건축주택설계실

올 한 해 좋은 일, 기쁜 일로 가득하시랑~!

① 가족과 함께 행복한 2022년이라는 것!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이가 곁에 있네요. 그리고 현대건설의 가족이 되기도 했고요.
② 올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건강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③ 출근하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선 밤새 키보드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먼지를 물티슈로 걷어줍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 전 작은 책자의 글귀를 읽으며 기도합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요. 평안한 하루의 시작이 된답니다.

김종성 책임매니저 |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랑~!

①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이 함께하는 2022년.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2010년에는 상상도 못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게 놀랍기도 하고 12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② 2022년 나의 목표는 다이어트! 주 3회 러닝으로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계획입니다.
③ 매일 밤 다섯 살 딸 아이와 영상통화하고 잠드는 게 저의 저녁 루틴입니다. 현장 근무로 저는 가족과 떨어져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핑얼어 만날 수가 없어서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얼굴을 보고 얘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육아로 고생할 아내, 한창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와 매일 함께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박유빈 책임매니저 | 토목해외사업실

2022년, 호강하시랑~!

① 2010년의 저는 홀쭉한 몸에 원대한 마음을 가진 20대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원대한 몸에 홀쭉한 마음을(?) 가진 NBA(N · 놀고 B · 뱅트 A · 아재 😄)가 된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어요!
② 2022년 목표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에요.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죠. 우선 올해는 결혼에 골인해 노총각에서 벗어날 예정입니다. 사진 속 아리따운 사람이 제 목표를 이뤄줄 예비 신부랍니다.
③ 출근해서 아침 인사를 나누고 컴퓨터를 켜는 동안에 텀블러를 씻고 믹스커피 세 봉지를 탑니다.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로그인 해야만 컴퓨터와 함께 제 두뇌도 세팅되는 기분이에요.

나한솔 책임매니저 |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공사 서울사무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으시랑~!

① 2010년의 저는 놀고 먹는 게 재미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어깨에 한 가정을 짊어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책임감의 무게가 엄청나네요.
② 2022년에는 꼭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올 7월께 이라크 현장으로 나가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완벽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겁니다~!
③ 토요일 오후에 남대문 시장에 갑니다. 꽃 도매시장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서 토요일 오후에 저렴하게 팔거든요. 1만원짜리 한 장만 들고 가도 세네 단은 살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갓 튀긴 꽈배기를 하나 사먹고, 집에 도착해 꽃병에 꽂아두면 집 안이 화사해집니다. 일주일을 기분 좋게 보내는 제 루틴이지요.

오유나 매니저 | 현대 클러스터 한강미사 3차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시랑~!

① 스물다섯,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였던 2010년. 새벽까지 축구 경기를 챙겨 보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할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체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퇴근해서 저녁 먹고 집안일을 하고 나면 왜 이리 피곤한지… 주말에도 왜 밤 10시만 되면 잠드는 걸까요?
② 2022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요. 이를 위해 요리 학원에 등록할 계획이에요.
③ 하루 중일 고생한 나와 가족을 위해 매일 저녁 8시쯤 저녁식사 겸 홈 파티를 열어요. 퇴근 후 열정적으로 마트에 달려가 장을 보고 요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가족끼리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이젠 일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강소민 매니저 |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

모두 부자 되시랑~!

① 2010년의 저는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컵 떡볶이를 먹던 초딩이었는데, 2022년의 저는 집에서 혼자 엽떡에 튀김도 추가해 마음껏 먹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② 2022년 나의 목표는 부지런해지기! 부지런함의 스타트로 매일 아침 신경 써서 화장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③ 출근 후 텀블러를 씻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가득 받아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 물을 마시거든요. 이 루틴을 잊으면 선인장처럼 물을 거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박혜은 매니저 |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순간순간 행복길만 걸으시랑~!

① 2010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은 점을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12년 전 명절은 용돈 받는 날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② 2022년 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무조건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③ 퇴근 후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수다타임! 비로소 하루가 마무리된 느낌이 드는 저의 '소확행' 루틴이에요.

위민수 매니저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하부공 축조공사

돈 많이 많이 버시랑~!

① 2010년에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였지만 지금은 군대도 다녀오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② 올해는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생각이에요!
③ 잠들기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얘기를 나눕니다. 재미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여자친구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엔도르핀이 솟아서 그런지 힘이 나는 기분입니다.

오늘을 괜찮은 하루로 조각하는 법,
데일리 루틴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종 2021년을 썼다가 2022년으로 고쳐 쓰곤 한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습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며 이 습관은 행동의 44%를 차지한다고 한다. 루틴은 습관과 좀 다르다. 루틴이란 '내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의도된 행동'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부정적인 결과를 염두에 둔 징크스나 부정적인 습관인 버릇과도 다른 개념이다. 좋은 루틴을 체계화한다면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일 의지를 다지지 않아도 될 테니까. 좋은 일상이란 어쩌면 좋은 루틴이 많은 일상인지도 모른다. 글=여두영 〈데일리 루틴〉 저자

왜 지금 루틴인가?

최근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 개인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다. 여기서 '루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루틴에 관심을 갖는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도 '루틴'이라는 단어의 검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게 2020년 초,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사회에 큰 변화가 일면서 개인 삶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나를 지키는 루틴'이 필요해진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모닝 루틴, 운동 루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데, 한 설문에 따르면 개인들이 실천 중인 건 생활습관 루틴이 가장 많았다.
원래 루틴은 흔히 사용하던 용어는 아니었다. 주로 운동 경기에서 활용 빈도가 높았다. 예컨대 일본의 야구 영웅 스즈키 이치로, 메이저리거 노마 가르시아파라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삼성의 박한이, 롯데의 박정태 선수 등이 독특한 타격 루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야구선수 이승엽은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말을 신거나 글로브를 낄 때 왼쪽부터 먼저 하는 루틴을 소개하기도 했다.

루틴, '최적화된 나'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이처럼 운동선수들이 루틴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루틴을 실천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불필요한 의사결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간은 하루에 7만 가지 정도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부터 '몇 시에 잘까'까지 종일 선택의 연속이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아침 식사를 찾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면 및 기상 시간을 연구해 루틴화하는 것만으로도 고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체계화된 루틴은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져보면 수많은 질병은 생활 속 크고 작은 루틴과 관련이 깊다. 퇴근 후 별 생각 없이 냉장고 문부터 열거나 비스킷을 먹는 작은 행동이 과체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건강한 루틴을 반복할 때 건강해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은 평범한 두뇌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청색 LED(발광다이오드)의 실용화에 성공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 꾸준한 일상의 루틴을 꼽았다. 매일 아침 7시 출근해 연구하고 매일 저녁 8시에 귀가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루틴. 그는 연구에 열중하느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루틴이 체계화되면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자유와 성취를 얻을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몰입할 수도 있다.

최적화된 루틴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한 설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평균 1.6개의 루틴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루틴은 성공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자신만의 루틴을 실천한다. 내게 맞는 최적화된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나 자신부터 잘 파악한다. 성공적으로 루틴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야행성인 사람이 새벽 4시 기상 루틴을 실천하겠다고 생각해 보자. 작심삼일에 그칠 확률이 높다. 혼자 하는 운동이 좋은 사람이 매일 아침 조깅 루틴을 한다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핵심은 내 기호, 성향, 나아가 비전까지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래 커리어를 탐색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새벽 기상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둘째, 중요한 루틴부터 늘려간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젊은 유도 선수들에게 줄줄이 한판승을 거두는 '유도의 신' 미후네 규조의 비결은 중심축을 놓치지 않는 데 있다. 루틴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실천해야 할 루틴을 무리하게 계획하는 것보다 욕심내지 않고 기상, 운동 등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중요한 루틴부터 하나씩 실천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좋은 루틴을 하나씩 늘려가면 된다.
셋째, 루틴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루틴은 한 번 만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실천하면서 꾸준히 개선해 가야 한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저항 없이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필요하다.

매일의 루틴, 역사를 낳다

루틴을 잘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는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음악의 신동'으로 불리는 모차르트는 매일 아침 6시까지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고, 7시까지 옷을 완벽하게 입고, 9시까지 작곡한 후, 1시까지 레슨, 2~3시쯤 점심 식사와 사회활동을 하고, 저녁 연주회를 마치면 잠자리에 들기 전 짬을 내어 작곡하는 루틴을 반복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남다른 루틴도 유명하다. 그는 예외 없이 매일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글을 쓰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달리기나 수영을 즐긴다. 2시부터 9시까지 독서와 음악 감상을 하고, 9시부터 4시까지 잠을 잔다.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인 존 밀턴은 43세에 과로로 실명이 된 후 매일 조수를 통해 책을 읽고 쓰는 하루 루틴을 실천한 끝에 59세에 불후의 명작인 대서사시 〈실낙원〉을 출간할 수 있었다. 위대한 이들의 일상에는 꾸준하게 실천해 온 루틴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루틴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삶의 형태나 생활 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 루틴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만약 작심삼일하고 있다면 계획을 이루게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즉 루틴이 없기 때문이다. 루틴의 어원은 '깨부수다(to break)'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관성을 깨고 삶에 새 길을 낸다는 의미다. 거창하게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우선 오늘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오늘이 쌓여 한 달, 일 년, 십 년, 일생이 된다.

현장을 안전하게, 사람을 소중하게! 오늘 '더' 진화하는 현대건설의 안전경영 이야기

안전특집 삶을 안락하게 하는 주택, 이동을 위한 도로와 교량, 전기를 위한 발전소 등 인생에는 언제나 건설물이 함께한다. 우리 회사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올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으로 삼았다. 그동안 잘해온 것은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과감히 적용한다는 포부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우리 회사 안전경영 돋보기.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 안전경영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체계화되고 견고해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며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의지를 또렷하게 보였다. 이와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하고, 건설장비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직책자의 건설안전·산업안전 자격 취득을 의무화한 것은 물론, 임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안전 조직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경영의 초석을 세운 우리 회사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안전제도 투자 확대 ▶스마트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며 남다른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본부와 안전관리본부가 합심해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작업 중지! 열외!'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컨디션 난조로 조기 퇴근을 해도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건설 현장이 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 회사에서라면 가능한 일이다. 건설 근로자가 나날이 고령화되면서 건강 이상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숙련된 근로자의 노하우를 100%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우리 회사는 업계 최초로 건강 상태 이상 및 증상 호소자를 사전에 작업에서 열외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작업열외권'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TBM(Tool Box Meeting) 시 작업반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작업 열외를 요청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는 작업 중에도 일어난다. 이때도 근로자가 현장 곳곳과 안전모에 부착된 [안전신문고] QR코드를 스캔해 '긴급 신고 전화'를 하면 된다. 요청 후 해당 근로자는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사 소장과 면담한 후 작업에서 열외된다. 근로자 및 협력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가 회복됐을 경우 작업에 재투입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당일 작업에 한해 작업열외권을 보장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한 노임 손실보전을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열외권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시켰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누구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더욱 활성화됐다. 우리 회사는 현장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적정 개인보호구 미지급 ▶화재·폭발·질식·중독 위험 노출 ▶낙하·충돌 위험 노출 ▶방호장치 미설치 ▶불량 작업발판 사용 ▶신체·건강 이상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관리자·근로자 모두가 안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스마트 러닝'을 확대했다. 또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안전·보건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도자, 신호수, 줄 걸이 작업자, 고소 작업대 운전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퉁 크게 상생협력!' 안전제도의 패러다임 바꿔

우리 회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협력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DABs(Daily Activity Briefings)'는 협력사와 매일 함께하는 안전점검 회의다. 오늘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고위험 작업을 점검하고, 내일의 작업 계획과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이 회의는 우리 회사 전 현장에서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 ZERO'는 시공사·협력사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협력사 성과 평가 시 안전 분야 점수를 기존 10%에서 30%로 3배 높였다. 일정 점수가 미달되면 협력사 등록을 취소하고,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또 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안전한 현장 관리가 곧 협력사의 성장 비결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또 현장 준비 단계부터 협력사가 꼼꼼하게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현장의 그레이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 예산 또한 추가로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용역사의 안전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있는 협력사를 위해서도 안전관리자 채용 시 임금(매달 400만원)을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지원해 준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협력사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장도 스마트하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우리 회사는 현대건설 맞춤형 디지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개한 '재해 예측 AI'는 우리 회사 국내 프로젝트들의 재해 위험 정보를 매일 각 현장에 제공한다. 지난 10년간 수행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약 4000만 건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현장 담당자가 현장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예정 공사 정보를 분석해 유형별로 안전재해 발생 확률과 안전관리 지침을 도출한다. 현장소장 및 담당자는 작업 당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해 예측 정보를 받아 선제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

'AI 영상인지 장비협착 방지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디지털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중장비 측·후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물과 사람을 구분한다. 사람이 접근하면 알람이 울려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최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시스템이 함께 적용됐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개발한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도 현장 안전관리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9년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IoT 기반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하이오스(HIoS)'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가설구조물 및 지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무인드론, 360도 카메라, 스마트 글래스 등을 연계해 입체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한 '원격현장관리플랫폼'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하면 현금 같은 포인트가 쏟아진다?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 'H-안전지갑'

사람을 소중하게, 현장을 안전하게 여기면 네이버 포인트가 쏟아진다! 건설 현장이 중대재해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 의지를 더욱 불태울 수 있도록 국내 건설사 최초로 'H-안전지갑'을 개발했다. 근로자의 무재해 근무일 수에 비례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다. 무재해 근로에 대해 복리로 포인트가 쌓이며,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거나 안전과 관련해 제안이나 신고를 해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러나 재해 발생 시에는 누적 포인트는 유지되나, 가중치는 초기화된다. 지난해 7월부터 'H-안전지갑'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우리 회사는 디자인 작업 및 네이버와의 협의를 거쳐 올 1분기 국내 전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4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현장탐방! 안전관리자의 하루 밀착취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현대건설'을 위해서는 물 샐 틈 없는 꼼꼼한 현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보신문〉은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현장을 찾아 '안전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하루를 함께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촘촘하게 이뤄진 이규진 안전팀장의 일상을 통해 우리 회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살펴보자.

06:20 업무 시작 6시 남짓이 되니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속속 현장사무소에 도착했다. 이규진 안전팀장이 사무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PTW(Permit To Work, 사전 작업 허가제) 서류를 살피는 것. 금일의 고위험 작업 사항을 다시금 숙지해 협력사 및 작업반장들에게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다.

06:40 협력사 TBM(Tool Box Meeting) 출근 후 첫 공식 일정은 협력사 소장들과의 TBM. 금일 고위험 작업을 재공지하고 기타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대해 강조하는 일은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07:10 직영반장 TBM 직영반장들과의 TBM은 밤사이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했다. 안전팀원들은 고소 작업 시 생명줄과 같은 안전고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사안들을 공지했다. 고위험 작업, 안전지킴이와 신호수에 대한 중요도 등 안전에 필수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07:30 신규 채용자 교육 현장에는 매일 새로운 근로자가 투입된다.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신입 안전교육은 필수! 근로자의 머릿속에 '안전'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은 물론 안전팀장의 애정 어린 조언까지 1시간을 가득 채워 진행했다.

08:30 현장 점검 본격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시간! 층마다 안전시설물은 잘 설치됐는지, 고위험 작업 시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있는지를 살폈다. 조금이라도 불안전한 사안이 보이면 무전기를 통해 관리자들에게 알리고 즉시 조치했다.

11:00 서류 업무 안전서류 결재 및 현안 보고도 중요한 업무다.

11:30 점심시간

13:00 TBM·안전팀 회의 TBM 후의 안전팀 회의 모습. 오후 작업의 특이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등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13:15 현장 점검 '보고 또 보고, 점검 또 점검', 이는 현장 직원들의 숙명과도 같다. 안전팀장은 "근로자들이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퇴근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핀다"고 말했다.

16:00 DABs(Daily Activity Briefings) 우리 회사와 협력사가 매일 함께하는 안전점검 회의다. 현장 점검만큼 중요한 시간으로 금일과 명일의 고위험 작업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17:00 현장 점검 주간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더욱 바쁘다. 정리·정돈은 현장 안전관리의 기본! 중간중간 작업 장소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내일을 위해 더욱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또 오늘의 작업일정이 안전하게 잘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일도 안전팀의 업무다.

18:30 안전 우수 근로자 격려 다른 이가 보지 않아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지만,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욱 힘이 날 것이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은 현장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관리에 노고가 많은 근로자를 격려했다.

작업열외권 현장 출입 때마다 체온 체크는 필수! 심리적·육체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당일 작업 열외가 가능하고, 손실 임금의 50%를 보전받는다.

장비안전 전담관리자 제도 운영 현장에서는 장비마다 QR코드가 붙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건설장비의 안전 작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안전 점검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장비마다 QR코드를 부착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지능형 CCTV 운영 현장과 같은 시간, 본사에서도 지능형 CCTV를 통해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을 할 경우, 본사와 현장사무소의 안전상황실에서 양방향으로 살핀다. 안전에 구멍이 보일 시에는 지능형 CCTV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 본사-현장의 관리자가 직접 위험을 알리기도 한다.

작업중지권 현장 곳곳에 비치된 [안전신문고] 표지판과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안전관리자의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안전·보건팀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팀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근로자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는 현장 안전점검인데요. 교육이나 서류 작업을 할 때 외에는 온종일 현장에서 생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자랑한다면?
우리 회사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작업중지 신고 ▶안전·보건 제안 ▶긴급 신고 전화 등의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 누구나 쉽게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좋습니다. 관리자로서는 '모바일 HPMS'가 매우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고위험 작업 및 장비 관리, TBM 현황을 볼 수 있고, 현장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든 현장 관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Q.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팀장으로서 포부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추락·낙하·협착은 물론 시설물 및 사전 작업 계획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안전팀장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현장

〈사보터뷰〉 안전편!
이제 유튜브에서도 사보신문을 만나보세요!

2022 국내 건설 경기 전망과 현대건설의 대응 방향

건설칼럼 지난해 국내 건설경기는 펜데믹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증가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도 자재 가격과 금융 비용의 상승, 그리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된다. 2022년 국내 건설 경기 전망과 그에 따른 현대건설의 대응 법을 살펴보았다. 글=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2021 국내 건설 수주 실적

2021년 국내 건설 수주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1~11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총 181조9000억원의 수주가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194조1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200조원(예측치) 이상으로 다시 한번 역대급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44조원으로 기간 대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주택 수주는 LH 발주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해 부진했지만,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정부 경기부양 사업 및 생활형 SOC 사업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각각 27.4%, 11.7% 늘었다. 민간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37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택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해 다소 주춤했지만 토목 수주가 10% 증가했으며, 오피스 건물과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의 수주 증가로 비주택 건축 수주가 37.8% 늘었다.

2022 국내 건설 수주 전망

2022년에는 2021년 건설 수주의 흐름을 일부 이어가 전년 대비 0.2% 증가한 214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 양상은 공종별 또는 발주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공공 수주는 증가해 양호하지만 민간 수주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수주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SOC 예산이 역대 최대치인 28조원으로 책정돼 도로와 철도 수주가 증가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발주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 비주택 건축 수주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자치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 수정이 이뤄질 것이며, 2019년부터 증가해 온 지자체 신규 건축공사는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활형 SOC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하반기 이후 공공 비주택 건축 수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수주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155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공사는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민간 주택 수주는 2021년에 다소 주춤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위해 적정 수준에 그칠 것이다. 2021년에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소폭 위축됐지만, 도심 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2022년에는 관련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 비주택 건축 수주는 2021년만큼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미 상업용 건물은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 반도체 호경기가 주춤하고 반도체 설비공장 증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반도체 공장 수주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토목 수주가 전년 대비 4.1% 증가해 양호하지만, 건축 수주는 1.1%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주택 건축이 1.2% 증가하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가 3.7% 감소해 건축 수주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현대건설의 대응 방향

올해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업은 대형 토목공사라 생각된다. 특히 철도 관련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2022년 예산에서 철도 부문은 8조3000억원으로 최근 15년래 가장 높은 금액이 책정돼 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산업,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남부내륙철도, 충북선철도,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대규모 철도사업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또한 GTX A, B, 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관련 사업의 영향력을 높여 향후 국내 대형 사업을 최대한 수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계획된 분양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1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입주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어느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록 그동안 3기 신도시를 비롯, 5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단기적 주택 수급 불균형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3기 신도시 착공이 본격화된다면, 그전에 착공을 미뤄온 사업지를 정리하는 동시에 2023년에 새로 나오는 대단지 사업을 강화하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불안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 이후 발생할 대형 공급 영향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2년 계획된 분양을 완료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 관련 신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류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해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나,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신사업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정된 도심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터널 물류 시스템 구축이나 수소 발전, 소형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신사업 분야에서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부사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정부에 투자를 제안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내 건설 수주 전망

구분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주액(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26.8	31.6	58.4	58.9
민간	76.2	79.8	156.0	155.9
토목	25.7	27.5	53.2	55.4
건축	77.2	84.0	161.2	159.4
주거	38.9	47.5	86.4	87.4
비주거	38.3	36.5	74.8	72.0
계	102.9	111.5	214.4	214.8
증감률(%, 전년 동기비)				
공공	27.3	1.8	12.1	0.9
민간	23.5	-0.6	9.9	-0.1
토목	41.4	3.8	19.1	4.1
건축	19.7	-1.1	7.9	-1.1
주거	3.4	-13.9	-6.9	1.2
비주거	42.5	22.8	32.2	-3.7
계	24.4	0.1	10.5	0.2

2021년 하반기, 2022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맛도 모양도 업그레이드, 떡이 변신했떡!

문화칼럼 아직도 떡이 '올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댓츠노노~ 요즘 감성을 담은 귀여운 모양과 고운 빛깔은 물론 떡 디저트, 떡 브런치가 넘쳐난다. 설맞이 신기한 떡 구경에 나서보자. 글=김보나 자유기고가 / 자료 제공=병과점임오반, 베리데이지, 썸씽어바웃커피, 청년떡집, 카페쌀쌀, 플로레아

붕어빵 아니고 붕어떡 구이

언제 먹어도 맛있는 추억의 가래떡구이를 겨울 감성의 '붕어떡'으로 즐겨보자. 메뉴 이름도, 떡 모양도, 그릇과 화로 세팅도 참을 수 없이 귀엽다. 흰쌀, 단호박, 쑥, 자색고구마 네 가지 색과 맛의 떡을 직접 화로에 구워 먹으면 된다. 떡꼬치 소스, 꿀, 팥, 한라봉 잼 네 가지 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문의** 카페쌀쌀(070-4647-0718) **가격** 9500원

무지갯빛 떡의 향연

평범하던 송편과 바람떡, 찹쌀떡도 고운 색을 입으면 특별해진다. 달달한 깨소가 들어간 스마일무지개송편은 알록달록한 색과 귀여운 모양 때문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스마일 송편을 쌓아 떡케이크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색연필처럼 예쁘게 포장한 무지개 바람떡에는 팥 앙금과 아몬드가 들어간다. 밀가루를 덮은 흰 찹쌀떡 대신 파스텔빛으로 다시 태어난 찹쌀떡은 팥 앙금에 밤과 호두까지 더해 맛도 한층 깊다.

문의 베리데이지(카카오톡 채널 '베리데이지')
가격 스마일무지개송편 2만5000원부터, 무지개바람떡 6000원부터, 무지개찹쌀떡 1만4000원부터(지점마다 가격 상이함)

이건 반칙! 떡꼬치+핫도그=떡도그

부드러운 밀가루 빵에 싸인 핫도그도 좋지만 쫄깃한 찹쌀떡 옷을 입은 '떡도그'라면 그 맛과 든든함이 금상첨화다. 게다가 기름에 튀기지 않아 핫도그보다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하다. 찹쌀과 케첩의 조화도 생각보다 훌륭하다. 매운맛과 치즈 맛 등 여러 가지 시즈닝을 뿌려 취향대로 즐길 수도 있다.

문의 플로레아(카카오톡 채널 '플로레아')
가격 2만5000원(8개입)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라산 쑥설기와 흑임자 크림

제주 여행 최고의 인증샷이 될 법한 귀여운 떡 디저트를 찾았다. 모양과 재료에 한라산을 담은 '할라한라산'이다. 한라산 쑥으로 만든 쑥설기 안에는 팥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위에 흑임자 크림을 부어 먹는다. 한라산 떡을 장식하고 있는 흑임자 쿠키와 견과류 정과도 주인장이 직접 만든다.

문의 카페쌀쌀(070-4647-0718) **가격** 9500원

식용 금박을 입은 황금떡

진짜 금이 올라간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다. 팥 앙금과 호두 알갱이가 꽉 들어찬 깨찰떡에 수작업으로 한 장씩 식용 금박을 올렸다. 이곳의 모든 떡은 HACCP 인증 생산 설비에서 국내산 찹쌀로 만들어지며, 100도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치대어 떡이 굳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청년떡집(youngmill.kr)
가격 황금떡 1호 세트 3만9900원(세트로만 판매, 황금깨찰떡 1개입, 깨찰떡 2개입, 티라미슈크림떡과 인생떡 각각 7개입)

보슬보슬 부드러운 롤떡케이크와 떡샌드

보슬보슬하면서도 쫀득한 백설기 안에 고소한 콩크림이 어우러졌다. 흑임자, 말차, 모카, 커피 네 가지 맛 모두 떡이 두껍지 않고 필링이 가득 채워져 부드럽고 맛이 진하다. 떡샌드는 롤떡을 하나하나 먹기 좋게 샌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보통 떡은 밥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기 쉬운데, 롤떡케이크는 냉동 후 자연 해동해서 먹을 때 식감이 더욱 살아나 두고 먹기에 좋다.

문의 플로레아(카카오톡 채널 '플로레아')
가격 롤떡케이크 2만5000원, 떡샌드 3만원(9개입)

이보다 더 '힙'할 순 없는 증편 브런치

한식은 물론 제과제빵까지 공부한 임오현 셰프가 정성으로 빚어낸 병과(한과)를 맛볼 수 있는 병과점임오반. 한국식 오픈 샌드위치인 '임오반 새참'이 이곳의 대표 메뉴다. 증편에 버섯과 과일, 푸성귀를 곁들여 먹는 브런치인데, 증편은 임오현 셰프가 국내산 쌀을 직접 고르고 씻고 불리고 빻은 뒤 막걸리를 넣어 최소 8시간 이상 발효시켜 만든다. 이 발효 과정을 거친 증편은 일반 떡보다 촉감이 더 폭신하고 맛이 달큼하다. 임오반 새참 외에도 유자 셔벗, 개성식 약과 등 세련된 K-디저트가 여러 개 준비돼 있다.

문의 병과점임오반(010-8792-2785)
가격 1만원(예약 필수)

영화·드라마 동시 주연 최우식

“새해 목표 벌크업… 변신 꿈꾸죠”

피플인사이드 청춘·로맨스·멜로에 어울릴 것만 같은 배우 최우식이 여리여리한 배우 이미지를 벗고 영화 〈경관의 피〉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했다. 〈존윅〉 〈매트릭스〉 같은 액션 연기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 최우식 배우를 만났다. 글=나원정 〈중앙일보〉 기자 / 사진=중앙DB

“영화와 드라마로 동시에 만나기가 힘든데 타이밍이 딱 맞았죠. 보여주는 이미지·캐릭터가 완전 다르다는 것도 좋았고요.” 지난달 첫 방영한 월화 로맨스 드라마 〈그해 우리는〉(SBS)에 이어 1월 5일 개봉한 범죄 영화 〈경관의 피〉(감독 이규만)에서 주인공을 맡은 배우 최우식의 말이다. K-좀비의 원조 〈부산행〉(2016),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한 〈기생충〉(2019) 등 앙상블 연기를 주로 해온 그가 주연으로서 책임감이 한층 묵직해졌다.

〈그해 우리는〉에선 5년간 사귀었던 첫사랑과 헤어진 지 5년 만에 다시 만난 스물아홉 청춘의 일상·감성을 풋풋하게 그려, 상대역 김다미와 지난해 연말 ‘2021 SBS 연기대상’ 디렉터즈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다. 영화 〈경관의 피〉에선 출처 불명 ‘스폰’을 받아 범죄를 소탕하는 광역수사대 반장 ‘강윤’(조진웅)을 감시하는 원칙주의 신입 경찰 ‘민재’가 됐다.

〈기생충〉 후 내적 고민, 그 해답이 〈경관의 피〉

영화에서 민재는 강윤에 대한 믿음과 의심을 반복하며, 경찰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눈뜬다. 〈경관의 피〉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소재 영화 〈아이들…〉(2011)을 만든 이규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기생충〉 이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최우식과 그런 그를 “해석이 유연하고 자신의 장점을 명확히 아는 배우”로 주목해온 이 감독이 뭉쳐 선과 악의 경계에 선 인물을 그려냈다. 최우식은 이번 영화에서 액션 연기에 뛰어들며 변신을 꾀했다. 키 181㎝의 장신인데도 그간 작품에선 연약하고 어리바리한 모습이 강조돼온 터다.

Q 완성된 영화는 어떻게 봤나.

민재의 성장하는 얼굴을 본 것 같아 만족스럽다.

Q 〈기생충〉 이후 내적 고민이 많았다고.

부담감이 컸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과보다 과정이 행복한 걸 찾기로 했다. 그래서 〈경관의 피〉를 선택했다. 이규만 감독님과 처음 미팅할 때부터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 현장에서도 내 연기를 믿고 의지해 주셨다. 조진웅 선배와 같이 연기하는 것도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Q 현장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민재 역에 제일 중요한 게 리액션이었다. 강윤의 뒤를 밟으면서 조진웅 선배님의 액션에 리액션만 해도 그냥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연기 호흡이 좋았다.

Q 신인배우상을 휩쓴 영화 〈거인〉(2014)을 빼곤 앙상블 연기가 많았는데.

〈기생충〉 〈부산행〉 등을 생각해 보니 다 앙상블이다. 사람들과 뒤섞여 연기하고 고민하는 작업이 재미있다. 앙상블 연기를 할때 좀 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자유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

Q 유도 기술을 쓰는 액션을 펼쳤는데.

〈경관의 피〉에서 민재가 유도를 잘한다는 설정이 있었다. 화장실 장면은 생각보다 강도가 셌는데 다행히 유도가 상대방 힘을 살려 (상대의 몸을) 넘기는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사실 액션 연기는 영화 〈마녀〉(2018)에서도 했는데 관객들에게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던 것 같다. 〈경관의 피〉를 찍고 나니 진짜 ‘액션’ 영화도 욕심난다. 〈존 윅〉 〈매트릭스〉 〈베이비 드라이버〉처럼 감정 소모 없이 액션으로 시작해 액션으로 끝나는 영화를 찍어 보고 싶다.

Q 〈그해 우리는〉은 TV 드라마 화제성 2위(굿데이터 2021년 12월 5주차 집계)에 올랐다. 영화 〈마녀〉에서 서로를 죽이려는 적으로 만났던 배우 김다미와 달라진 호흡도 화제인데, 두 작품을 맛에 비유하면.

아직 반응은 경험 못 했다. 얼마 전 드라마 마지막 촬영이 끝나자마자 계속 영화 홍보를 하고 있다. 코로나 전엔 어디라도 잠깐 나가서 느꼈을 텐데, 요즘은 아예 집에 있거나 일만 하니까 느낄 수가 없다. 주변에서나 가족들이 드라마 반응이 좋다고 해도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방금 전까지 안 믿고 있었다. 다미씨의 호흡은 〈마녀〉때는 진짜 매운 떡볶이 같았다면, 〈그해 우리는〉은 김밥 같다(웃음). 익숙하면서도 가지각색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언제 먹어도 편한 음식이기도 하고. 둘 다 재밌게 찍었다.

Q 〈그해 우리는〉의 최웅과 〈경관의 피〉 민재는 캐릭터가 정반대다. 힘들 때 민재는 정면승부를, 최웅은 일단 도망쳐서 시간을 버는데 실제론 어떤가.

집에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스타일이다. 사생활은 최웅, 일할 땐 민재와 비슷하다. 연기할 땐 자신감이 넘쳐서 뭘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웃음).

Q 좋은 연기란 뭐라고 생각하나.

보는 사람이 배우의 진심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 최고의 연기인 것 같다.

Q 30대지만 여전히 교복 입는 10대 연기도 잘 소화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한계로 다가온 적도 있나.

많다. 인터뷰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버벅대고 여태껏 그런 이미지가 많아서 장르를 떠나 들어오는 캐릭터가 좀 한정적이었다. 나만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솔직히 2022년 목표가 ‘벌크업’해서 근육질까진 아니더라도 체형 변화를 주고 싶다. 단순히 남성미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를 더 해보고 싶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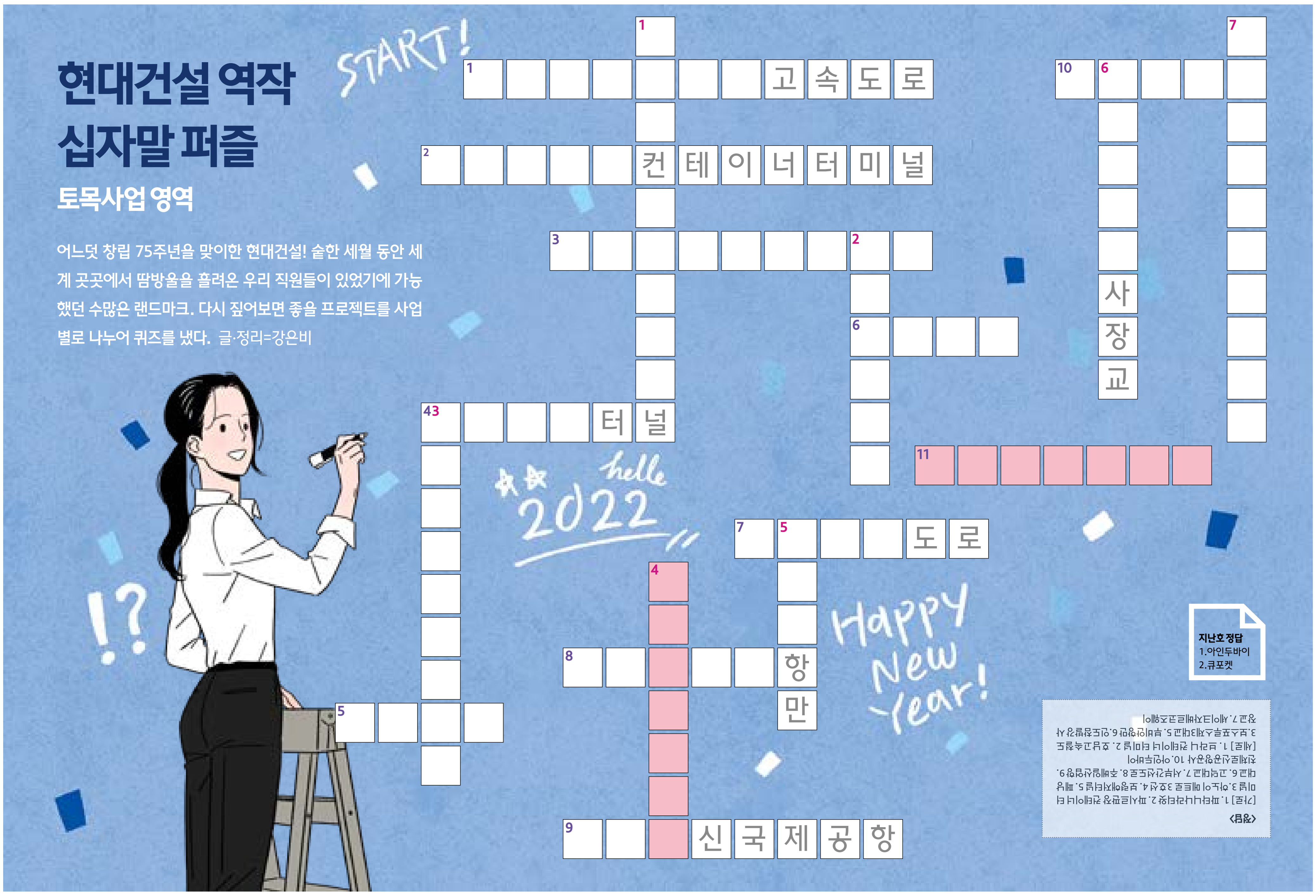
Q 〈기생충〉 이후 할리우드 작품 러브콜은 많이 오나.

나도 사람인지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었다(웃음). 할리우드에 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작품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이거 해외에서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현대건설 역작 십자말 퍼즐

토목사업 영역

어느덧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현대건설! 숱한 세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땀방울을 흘려온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수많은 랜드마크. 다시 짚어보면 좋을 프로젝트를 사업별로 나누어 퀴즈를 냈다. 글·정리=강은비



가로

❶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프로젝트로,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도로를 건설한 이 현장은?

❷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케이슨 공법을 시도해 해양 인프라 공사를 진행한 프로젝트는?

❸ 베트남의 수도인 이곳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공사로 우리 회사는 지하 공간 공사를 맡아 이 지역 최초로 TBM 공법을 적용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현장명은?

❹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터널의 이름은?

❺ 말레이시아에 건설한 이 교량은 본토인 세베랑 페라이와 페낭 섬을 연결하는 다리다. 완공 당시 동양 최장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사장교였던 이 다리의 이름은?

❻ 우리 회사에서 짓는 열네 번째 다리다. 이 곳의 이름(가칭)은?

❼ 서울 도심의 악명 높은 정체 도로에서 국내 도심지 최대 규모의 터널로 탈바꿈한 곳이다.

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20세기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곳이다. 공사 금액이 무려 9억 6000만 달러나 투입돼 단일 회사가 맡은 공사로는 당시 세계 가장 규모가 컸던 프로젝트는?

❾ 우리 회사가 페루 건설시장에 첫 진출한 프로젝트다. 연간 570만 명이 수용 가능한 첨단 공항 시설을 짓는 이 공사는?

❿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리 회사가 지은 세계 최고 높이의 대관람차다.

⓫ 우리나라 최초의 실증을 위한 발전단지이자 우리 회사의 첫 해상풍력 공사로 의미가 남달랐던 프로젝트는?

세로

❶ 싱가포르의 무인도를 세계적인 컨테이너항으로 변모시킨 공사로, 공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싱가포르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프로젝트다.

❷ 서울에서 전남 목포를 잇는 고속철도로 기존의 경부축에 국한됐던 반나절 생활권을 넓힌 철도다. 우리 회사는 3경간 강아치교 등 교량 9315m가 포함된 철도를 건설했다.

❸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에 건설된 세 번째 다리다. 유라시아의 가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터키의 랜드마크인 이 교량의 이름은?

❹ 카타르 도하를 관통해 신도시 루사일로 이어지는 이 현장은 제2 영동고속도로에 적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이 도입돼 전방의 사고 및 터널 밝기 등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❺ 쿠웨이트 부비안 섬을 25만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4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 단지용 땅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이름은?

❻ 인도의 생태보호 구역인 코타댐을 가로지르는 교량 공사로, 인도 내 최장 주경간이자 최고의 주탑을 가진 사장교다.

❼ 기존 70분이 소요되던 시간을 20분 남짓으로 단축시킨 이 다리는 수도 쿠웨이트시티와 수비야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6.1㎞의 초장대교량이다. 돛단배 형상의 고난도 비대칭 사장교가 눈에 띄는 이곳의 이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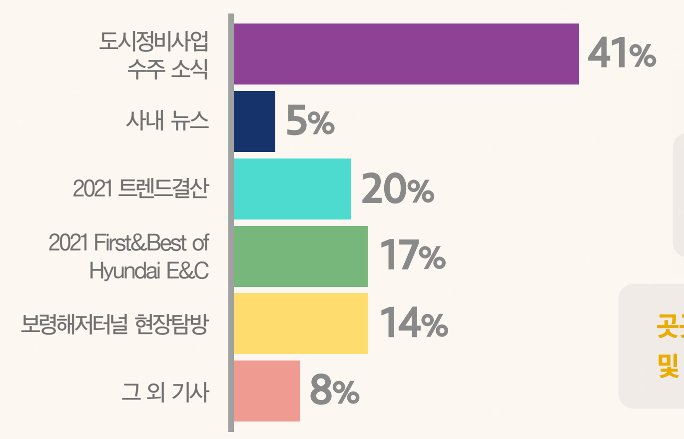
가로세로 퀴즈 중 빨간박스의 정답을 아래 QR로 보내주세요.

사보신문 애독자 코너

Reader's Letter

현대건설의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Q 독자 선택! 409호 원픽 기사는?



Q 사보신문에게 바라는 한마디!

우리 회사의 신시장 진출 현황 및 올해 주력하는 곳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와 건설과의 융합도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그런 기술도 알고 싶어요.

곳곳에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인터뷰 및 담당 직원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십자말 퍼즐 참여하기!

상단 퍼즐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을 추첨해 커피&케이크 세트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 ❶ QR코드 스캔
❷ 독자 의견 & 주관식 답 보내기
❸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2월 18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따뜻한 커피 1잔

창립 75주년 특집

숫자로 되짚어보는 토목사업 7 Works

①토목편 창립 75주년을 맞이해 현대건설의 발자취를 되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역작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첫 해외 건설 공사인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부터 싱가포르 국토 면적을 7% 넓힌 준설·매립 공사까지. 세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우리 회사 토목사업의 7가지 공종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봤다. 글·정리=강은비 / 도움=김형우 책임매니저

1 세상을 잇는 도로

1968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대한민국 1번째 해외 공사

1968
경인고속도로
- 대한민국 1번째 고속도로

1970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428㎞를 잇는 도로
- 한강의 기적을 이끈 고속도로

1989
이라크 요시 고속도로
- 중동 고속도로 건설의 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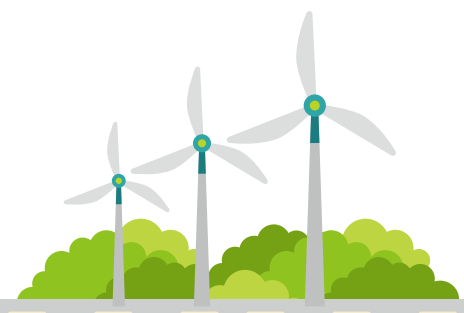
2019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 총 15㎞의 16차선 도로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적용

2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파란 바람 가득
국내 해상풍력단지 2곳

2019 서남해 해상풍력
- 우리나라 최초의 실증 발전단지
- 현대건설 최초의 해상풍력 공사

2024(예정) 제주한림 해상풍력
-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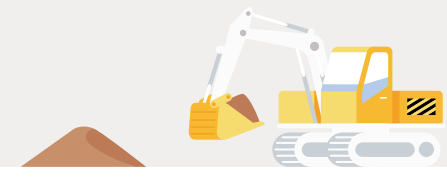
3 토목 건설의 미개척 분야 지하 공간

2017 싱가포르 주롱 해저 유류기지 공사
세계 3대 오일허브
- 동남아시아 최초의 해저 유류 비축기지
- 해저 130m 아래, 직경 26m, 깊이 126m 수직구로 연결

2020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 11.2㎞ 도수터널, TBM공법, 하루 평균 54만t의 물 전남 동부권으로 공급

2021 보령 해저터널
- 국내 최장 6.9㎞ 해저터널, NATM공법, IMG공법
- 세계 다섯 번째로 긴 터널

2026(예정) 김포-파주 고속국도 400호
- 국내 최대 직경(14m), TBM공법, 스마트 기술 HIoS 적용



4 바다와 땅의 경계를 허문 항만

1975 **주베일 산업항** 50만t급 유조선 4척 동시 정박, 20세기 최대의 역사(役事)

1959 인천 제1도크 복구공사
- 해양 인프라 건설 첫 프로젝트

1994 브라니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공사
- 공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공사

2002 파시르판장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 싱가포르에서 케이슨 공법을 최초로 시도한 해양 인프라 공사

2012 스리랑카 콜롬보 항만 확장공사
- 컨테이너 터미널의 연간 처리 능력을 1200만TEU로 확장

2014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
- 1700m 안벽, 소형 선박 정박지 및 방파제 조성
- 여의도 면적 60% 규모 부지(약 57만 평)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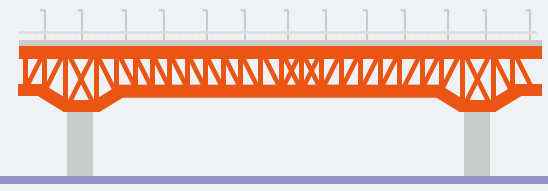
2018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 15만t급 크루즈선 1척, 5만t급 카페리 1척, 3만t급 카페리 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 건설

2019 여수 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 남해안 최대 규모 항만시설
-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설치된 오션 오르간

5 랜드마크 교량

우리 회사가 건설한 특수교량 5개 형식

사장교	**말레이시아 페낭대교(1985)** 완공 당시 동양 최장,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교량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2019) 총연장 36.1㎞의 초장대교량과 비대칭 사장교
	고덕대교(2023 예정) 세계 최장 콘크리트 사장교
현수교	**남해대교(1973)** 대한민국 최초 현수교
	울산대교(2015) 주탑 사이 거리 1150m 당시 세계 3위 규모의 단경간 현수교, 국내 최초 PPWS공법 적용
트러스교	**성산대교(1980)** 국내 최초 게르버트러스교(Gerber Truss), 한강 다리 최초로 조형적 가치 부여
	마곡대교(2010) 한강에 놓인 네 번째 철도 전용 다리
아치교	**한강인도교 복구(現 한강대교)(1958)**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교, 고철 레일을 사용한 새로운 공법
	구리암사대교(2016) 서울 동부권의 교통 체증을 크게 해소한 다리로 FSLM공법 적용
하이브리드교 (사장-현수교)	**터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2016)** 최초의 사장-현수교 장대교량, 38개월 최단 기간의 공사



6 국가 균형발전에 필수인 철도

해외 6개국 진출

1992 이라크 북부 철도
1995 싱가포르 고속전철 확장공사
2004 대만 고속전철
2024(예정) 필리핀 남북철도 1공구 공사
2025(예정) 파나마 메트로 3호선
2025(예정)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3호선

7 해안선을 디자인하는 준설/매립

싱가포르 국토 7%를 확장한 매립공사

2027(예정)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싱가포르 내 최대 규모 케이슨 227함 제작 설치

1984 풀라우테쿵 매립공사
본격적인 싱가포르 진출 시작

2022(예정) 투아스 서부해안 매립공사
투아스 서측 해안을 매립하는 안벽 조성공사

1998 창이공항 매립공사
1982년 시작된 1~3단계 매립공사 모두 수행, 여의도 면적 두 배에 이르는 부지 확보